10월 27일 신원초 3학년 온라인 국어 수업

오늘 배운 시 <감기>를 바꿔 써 봅시다.

감기

글: 정유경, 그림: 조미자

내 몸에
불덩이가 들어왔다.
-뜨끈뜨끈.
불덩이를 따라
몹시 추운 사람도 들어왔다.
-오들오들.

약을 먹고 나니
느릿느릿,
거북이도 들어오고
까무룩,
잠꾸러기도 들어왔다.
내 몸에
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.
그래서
내 몸이 아주 무거워졌다.

시험

최자두

내 몸에
사우나가 생겼다.
-주룩주룩.
사우나를 따라
몹시 쿵쾅거리는 사람도 들어왔다.
-쿵쾅쿵쾅

시험을 치고 나니
쓱싹쓱싹
마음의 짐을 지우는 사람도 들어오고
남남썰썰
맛집을 찾는 사람도 들어왔다.

내 몸에
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.
그래도
내 몸은 아주 줄거워졌다.

제목: (　　)

지은이: 3학년 (　)반 (　　)

내 몸에
(　　)가 생겼다.
- (　　)
(　　) 를 따라
몹시 (　　) 사람도 들어왔다.
- (　　)

(　　)고 나니
-(　　)
(　　)도 들어오고
- (　　)
(　　)도 들어왔다.

내 몸에
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.
그래도/ 그래서
내 몸은 아주 (　　).